

전 남

고흥 향토음식 '9味' 아시나요

고흥군 향토음식연구회(회장 송인숙)가 고흥 향토음식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대서면 장선마을 공인 일대에서 음식연구회의 활동 기반 구축과 회원 상호교류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연 건강요리 체험 및 정보교환을 비롯해 회원 요리정보 발표, 상반기 활동평가, 회 활성화 방안 협의, 농촌 자연생태 보존 환경정화 활동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음식연구회의 회원 수는 현재 30여 명으로 대부분 가정주부들이다.

음식연구회는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고흥의 아홉 가지 대표 먹을거리인 '9미(味)' 행사 등을 통해 고흥의 향토음식과 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음식 개발·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흥군의 특산물인 유자 활용을 위해 유자차, 유자해초탕수, 전어유자회 등 13가지 요리를 발굴했다.

특히 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오는 11월 말에 파내는 '고흥의 9미 요리백서' 발간에 자료제공을 하는 등 고흥의 음식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9미는 참장어(하모)·낙지·삼치·전어·서대·굴·매생이·유자향



참장어·낙지·유자향주 등 9가지 재료로

향토음식연구회, 음식 개발·홍보 나서

주·봉장어(아나고) 등을 재료로 하는 요리이다. 이 가운데 8가지가 고흥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고,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진석화정'은 조선시대에 궁중에 진상되기도 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 육류 대신 생선·해조류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흥의 해산물 요리가 웰빙요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음식연구회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제 2기 신활력사업(2008~2010년) 일환으로 '9미 요리아카데미' 운영, '9미 요리백서' 발간 등 전통·향토음식의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9미 요리아카데미는 지난 4·5월 48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과정으로 나눠 전통·개발요리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했다.(사진)

송인숙(60) 음식연구회장은 "앞으로 고흥의 토산·향토음식을 보존·계승하고, 해산물인 8미를 이용해 7~12가지 코스요리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보급하겠다"며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내 식당에서 실제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광양 보건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광양시 보건소 직원들이 24일 진상면 회두마을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하반기에도 총 35회에 걸쳐 보건의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제공>

신안 천일염 브랜드 파워 높인다

'연합사업단' 출범... 2013년 시장 80% 석권 목표

천일염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체,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 천일염 연합사업단'을 출범한다.

농협 목표·신안 시군지부(지부장 박종수)는 25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생산자와 농협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사업단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열고 대량 판매처 개발 등 본격적인 판촉활동에 들어간다. 연합은 신안 천일염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현지답사와 조합장,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단을 출범하게 됐다.

연합사업단은 앞으로 천차만별인 천일염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을 통일하고,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 생산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수준높은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합사업단은 올해 안에 ▲자체 구매기준 제정과 이행 ▲브랜드 통합과 새로운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와 홍보용 CD제작 등 사업기회를 정밀 분석하고 현지답사와 조합장,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단을 출범하게 됐다.

개발·유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안 천일염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정밀조사하고 현지답사와 판매 조합장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합사업단 설치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사업단 근무직원을 보직 공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해왔다.

박종수 지부장은 "천일염은 신안군의 물적자원 중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고, 소금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농협의 마케팅 점유율을 현재의 32%를 2010년 50%, 2013년 80%까지 끌어올려 국내 천일염 시장을 완전 석권해 생산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완규기자 wncho@

전남 새끼돼지 폐사율 13% 감소

소모성 질환 예방 컨설팅 지원 등 효과

올 상반기 전남지역 새끼돼지 폐사율이 지난해보다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양돈농가 40곳의 올 상반기 새끼돼지 폐사율은 12%, 육성돈은 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새끼돼지 폐사

율 25%보다 13%포인트, 성돈 폐사율 9%보다 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돼지 폐사율이 감소한 것은 올해 이들 농가에 총 3억2천만원의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돼지 소모성 질환에는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이유후 돼지전신소모성증후군, 유행성 설사, 호흡기 복합감염

증 등이 있으며 다양한 병원체와 불량한 사육환경 및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끼 돼지의 폐사율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해 지원사업을 펼쳐 양돈농가 스스로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감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생적인 사양관리, 스트레스 감소 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의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함평에 뱀·악어 공원 생긴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내년 8월 개관

'나비의 고장' 함평군에 전국 최초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조감도)이 들어선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함평자연생태공원 인근 8만5천여㎡에 175억여원을 들여 생태 전시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생태공원에는 뱀 주제 전시관, 파충류 생태관, 악어 연못, 악어 공연장, 양서·파충류 등 다채로운 시설과 함께 체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군은 토지 매입과 시설설계,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내달 초 기공식에 들어가 2010년 8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완공되면 함평군이 함평자연생태공원, 엑스포공원 등과 연계한 복합 생태 테마 관광지로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함평군이 생태 관련 연구,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복합적 생태관광자원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구·서양기업사 | 새·북기업사 | 정부중립기업 | 중소기업 | 한국교육 | 한국교육인재개발원 | 중소기업 | 11월 11일

두번 슬프게 하지 양장습니다.

프리드

구분	단위	비고	문의처
인사	인사	인사	1566-4499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대중압상조 가입문의 1566-4499